

축 사

안녕하십니까?

97년 전,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종교인이 중심이 된 민족대표 33인의 지도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을 드높였습니다. 이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회를 갖게 되었으니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미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앞장서서 지난 1년 동안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노력해 오신 박남수 천도교 교령님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범종교, 범시민 기구를 통해서 더욱 규모 있고 활기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단지 영광된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세계를 위한 비전과 교훈을 담고 있기에 기념사업의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종문을 달리하는 이웃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였다는 점 또한 커라단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간 화쟁의 전통을 극적으로 개화시킨 쾌거이며, 우리나라가 종교간 평화에 관한 한 세계 으뜸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시원이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3.1운동은 결코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모범적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지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1운동은 전 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시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나아가 통일의 원동력으로서 남과 북, 해외의 동포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한민족 정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3.1정신은 살림의 정신이요, 평화의 정신이요, 창조의 정신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21세기 생명평화의 신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만연한 분쟁과 빈곤을 타파하는 신문명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사업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열들의 뜻을 따르고 이어가겠다는 실천의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

와 후원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긍지와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